

국내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농장으로 전파 가능성 당국 '비상'

〈가금류〉

농식품부, 소하천·소류지 소독 총력

국내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가금 농장으로의 AI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아 관계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천안 봉강천, 제주 하도리 등 국내 철새도래지에서 벌써 7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03개소를 중심으로 방역방제기, 무인헬기 드론 등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소하천 및 소류지에도 철새가 관찰되는 등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방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농가 인근의 소하천이나 소류지에 철새가 도래하는 등 AI 전파 위험성이 있는 곳은 가금농가가 방역 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접수된 대상지는 관할 시·군 주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농가의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매일 전국 6,000여 가금농가에 관련사항을 문자로 발송하고 있으며, 신고하고자 하는 농가는

관할 지자체 방역부서(1588-4060) 또는 가금농가 협회 등을 통해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서는 소독 사각지대 제거를 통한 촘촘한 방역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소독대상지 신고에 대한 가금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농장 인근 소하천·소류지에 대한 출입 자제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개공, 순창 순화지구 도시개발 조성 '착공'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가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순창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가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오늘 착공한다.

순창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순화지구)은 순창 순화리 21번지 일원 99,087m² 규모에 610세대를 수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시설로는 순창읍 사무소, 선거관리위원회, 공동주택(85m²초과 55세대, 85m² 이하 418세대, 60m² 이하 106세대), 준주거(415~576m², 12필지) 및 단독주택(324m²~524m², 31필지), 유통시설(6,223m², 1필지)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순화지구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내 하도급 및 자재 업체를 최대한 참여시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아울러 2021년 상반기 진행할 공동주택, 준주거 및 단독 주택용역 등 분야를 통해, 순창군 주택수용 대응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남원농협,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 임직원 및 부녀회장단(200여명)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본점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실시했으며, 25일에는 하나마트 주차장에서 '로컬푸드 우수농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배추 1,500포기를 담가 장기간 코로나와 수해 및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다문화 가정 및 소외계층 300여 가정에 김장김치를 지원했으며, 체온측정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을 철저히 지키며 청결하고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최하고 남원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주관하는 로컬푸드 우수농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열어, 사과, 표고버섯, 배추, 오이 등 13품목 우수 로컬푸드 농산물을 700여명에게 무료로 전달하고 고구마, 딸기 등 7품목 시식회를 열었다.

박기열 조합장은 "안전하고 신선한 로컬푸드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지속적인 판로개척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원기주 기자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지난 27일, 전통문화예술의 보급과 국악영재 발굴 등을 위해 전통한국음악예술원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전통한국음악예술원 김금희 대표, 신협사회공헌재단 김윤식 이사장)

"전통예술 보급·국악 영재 발굴에 써주시길"

신협, 전통한국음악예술원에 후원금 전달

신협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윤식, 이하 재단)은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신협중앙회관에서 전통한국음악예술원(대표 김금희)과 지난 27일 전통문화예술의 보급과 국악 영재 발굴 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후원은 신협의 전통문화 부활과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향후 소외 지역 대상 문화예술 접근성과 삶의 질의 향상과 전통국악 영재발굴 및 문화재 전수자 교육을 통한 전통문화예술 보급 및 계승에 기여할 전망이다.

전통한국음악예술원은 전달된 후원금을 통해 김금희 명창을 중심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전통음악체험, 전통국악 영재발굴, 문화재 전수자 집중교육, 정기공연 및 문화교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윤식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소외된 문화 예술인들에게는 더욱 더 혹독한 겨울이 예상되며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벨기에 브뤼셀의 '오줌싸개 소년' 동상이 스토리텔링을 통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듯 신협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외된 문화예술 산업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매력적인 대한민국으로 디자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신협은 최근 잇따른 전통문화 및 문화예술 산업을 발굴·육성해 지역경제와 동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역특화사업의 첫 시작인 전주한지 사업은 전주한지협동조합의 생산품 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홍보하며

한지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해외 진출 등을 통해 2017년 대비 매출이 6배 급성장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지난 6월에는 전통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신협 대상 관광 프로그램인 '전년한지·백년신협 한지 특화여행' 신협·한지로를 추진했으며, 11월에는 문화재청 및 전주시와 '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곡(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및 종묘 참호 보수에 전주한지창호지 후원하고 신협 문화재 지킴이를 발족했다.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주요 50개소에 코로나 감염병 예방 물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2019년부터 한국영화인총연합회와 함께 주거취약계층 영화인들을 위한 장기무상임대주택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중기 86.4%,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만족'

작업환경 개선·생산성 증가·품질 개선 등 성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만족도 및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지원방향을 모색하고자 참여기업 48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지난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참여기업의 86.4%가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얻게 된 성과는 ▲작업환경 개선(53.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생산성 증가(40.9%) ▲품질 개선(3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솔루션 구축에 대한 만족도는 77.0%로 나타났으며, 만족하는 이유로는 ▲생산현장 모니터링 수월(44.1%) ▲솔루션 적용 효과 높음(43.3%)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29.1%)순으로 응답했다.

상생형 스마트공장에 특화된 대기업 제조현장 전문가의 멘토링에 대한 만족도는 88.8%로 나타났다. 전체 유형에 대하여 업종별로는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93.0%)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1차 금속 및 금속가공 제조업(83.0%)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82.0%)이 뒤를 이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등의 어려운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구축기업의 14.0%가 고용이 증가(평균 4.3명)였으며, 18.5%의 기업이 매출이 증가(평균 약 20.1억 원)했다고 응답했다.

정육조 중소기업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해에 이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구축기업들이 작년 이어 올해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중기중앙회는 이러한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신규모델 개발 및 판로지원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과 함께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업종별특화 스마트공장 사업 및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돕고 있다. 추진 사업의 세부내용 및 참여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02-

2124-3392, 4312, 4319)과 홈페이지(www.kt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기온 뚝!... 전북농기원

겨울철 농작물관리 철저 당부

전북도농업기술원(박경숙 원장)은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도내 유휴농지와 시설채소의 피해 예방을 위한 작물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시설채소의 경우 작물별로 알맞은 온도관리가 필요하며 과채류는 야간 최저온도를 12℃ 이상, 엽채류는 8℃ 이상 유지해 주어야 한다.

정식이 늦어진 양파의 경우 부직포나 유공비닐로 덮어주어 동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덮개를 흙으로 덮어 바람이 날리지 않도록 잘 고정해 주어야 하며, 과수의 경우 대목 및 주간부를 두꺼운 부직포나 볏짚, 신문지 등 보온자재로 피복하고 백색수성페인트를 칠해주어 동해피해를 방지 않도록 한다. /익산=장영환 기자

'밥이 보약입니다'

전북농협-도쌀전업농전북연합회
쌀 소비촉진 '아침밥먹기 캠페인'

내달 10일까지 추진

전북농협은 전북도, (사)한국쌀전업농전북도연합회와 함께 쌀 소비촉진을 위해 '밥이 보약이다'는 슬로건으로 '아침밥먹기 캠페인'을 지난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추진한다.

전북농협과 (사)한국쌀전업농전북도연합회는 지난 25일부터 농촌진흥청의 '밥 중심 아침식사의 청소년 건강영양평가 연구과제에 참여한 전주사대부고와 영성고에서 재학생들에게 홍보 전단지(쌀(500g)를 나누어 주며 아침밥 효능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전북대학교,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침식사를 하면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13% 증가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알파파가 1.3배 증가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베타파가 1.7배 증가해 주의와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한다.

또한 농협은 이번 수능에 응시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수험표를 인증하면 매일 100명씩 선착순으로



수능 응시 학생 등 대상
13일까지 수험표 인증하면
선착순으로 심리향미 증정

1000명에게 심리향미(500g 4개)를 증정할 예정이다.(신청방법 : 육구농협 홈페이지 가입 → 아침밥 먹기 캠페인 게시판 → 수험표 인증)

이번에 증정하는 쌀은 전라북도에서 10여 년에 걸쳐 연구개발한 구수한 향이 나는 밥쌀용 쌀로 전북농협과 전북도가 '예담재 심리향미'로 광역브랜드화해 전북 명품쌀로 키우고 있다.

(사)한국쌀전업농전북도연합회 서규석 회장은 "이번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아침밥의 순기능을 이해하고 아침밥을 꼭 챙겨먹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기금운용 수익률4.17%

국민연금, 올해 3분기 말 기준

경기개선 기대 등으로 인한 증시 회복에 수익률 '양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 기금

운용분부는 지난 9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전년도 말 대비 48조 8,000억원 증가한 785조4,000억원에 이르렀으며, 지난 9개월 동안의 올해 수익률은 잠정 4.17%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 상황에 불구하고 안정적인 운용으로 양의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연초 세계 경제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경제 봉쇄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우려로 국내 및 해외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수요 부족 우려 등으로 유가가 급락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심화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충격 이후 글로벌 주요 국가의 대규모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및 해외증시는 3분기 들어 상승 전환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3분기 말 기준 국민연금의 연간 운

용수익률은 4.17%, 기금 설립 이후부터의 누적 연평균 운용수익률은 5.69%를 기록했다.

자산군별로는 국내주식이 8.47%, 해외주식이 3.28%, 국내채권이 2.69%, 해외채권이 6.01%, 대체투자가 3.94%의 수익률을 각각 기록했다.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은 코로나19 백신개발 진행 및 기업이익 증가 전망에 따른 경제 회복세와 미국 대선을 앞두고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수익률이 상승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전년 대비 상승하면서 해외주식 수익률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국내채권 및 해외채권은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국고채매입 등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유동성 증가 영향을 받아 금리가 하락했다. 그 결과 채권자산 평가이익이 증가했고, 환율 상승으로 해외채권 수익률이 상승했다.

한편 대체투자 자산의 경우 연중 수익률은 대부분 이자 및 배당 수익에 따른 것이며, 해외 자산의 경우 환율 변화에 따른 외화 환산손익이 반영된다. 대체투자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는 연도 말 기준으로 연 1회 이루어진다. /김윤상 기자

겨울철 농기계 고장없이 오래 쓰려면?

농진청, 보관·관리방법 소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지난 27일 장기간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겨울철을 앞두고, 농기계 보관과 관리방법을 소개했다.

농진청은 먼저 농기계를 깨끗이 닦고 각 회전 부위, 절단 부위, 벨트, 체인 등을 점검하고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시설채소의 경우 작물별로 알맞은 온도관리가 필요하며 과채류는 야간 최저온도를 12℃ 이상, 엽채류는 8℃ 이상 유지해 주어야 한다.

정식이 늦어진 양파의 경우 부직포나 유공비닐로 덮어주어 동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덮개를 흙으로 덮어 바람이 날리지 않도록 잘 고정해 주어야 하며, 과수의 경우 대목 및 주간부를 두꺼운 부직포나 볏짚, 신문지 등 보온자재로 피복하고 백색수성페인트를 칠해주어 동해피해를 방지 않도록 한다. /익산=장영환 기자

이 있으므로 연료통을 완전히 비워 보관한다. 타이어 공기는 표준 공기압력보다 조금 더 넣고, 주차 브레이크를 걸어둔 상태로 타이어 앞뒤에 고임목을 놓아 땅에 닿지 않게 한다. 농기계는 건조한 실내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농기계별 관리요령을 충분히 익혀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할 것을 강조했다. 트랙터는 클러치 페달을 밟아 고정하며, 부착된 작업기는 떼어놓거나 지면에 내려둔다. 이앙기는 이앙기 스프링이 풀린 상태로 두고, 육묘상자는 깨끗이 씻어 30대 내로 쌓아둔다. 콤팩터는 각 회전 부위, 베는 날, 벨트, 체인 등에 감겨있는 지푸라기와 잡초 등을 빼내고, 날이 녹슬지 않도록 그리스를 발라둔다.

자세한 농기계 관리와 정비요령은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의 '농자재→농기계→농기계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